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2 15:35 수정 2021.10.02 16:55 호수 1604 댓글 3

삼보사찰 천리순례, 곡성서 구례 사성암까지 25km 행선
섬진강이 만들어낸 짙은 안개 속 화두·염불·주력 등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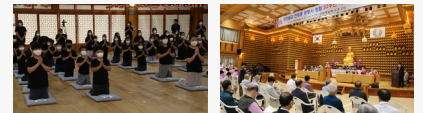
맑은 목탁 소리가 이른 새벽을 깨웠다. 이어진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 독경소리에 대중들은 잠에서 벗어났다. 10월2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자비순례 2일차 일정은 새벽 3시 도량식으로 시작됐다.

하루 전 입제식을 갖고 천리순례의 첫발을 댄 순례단은 이날 전남 곡성 용바위 주민생활체육공원을 출발해 사성암 주차장까지 총 25km 구간을 행설했다. 순례에 앞서 예불문과 한글반야심경 봉독으로 이변 천리순례의 의미를 되새긴 대중들은 섬진강이 만들어낸 짙은 안개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조계종부산연, 첫 어린 천태종 부산 광명사, 창
이 삼귀의계오계 수계 립 52주년 기념법회 봉

사진과 글로 만나는 통도사 스님들의 내면 살림
경남 고성 운흥사 괘불탱화, 영축산에 나투다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
근현대 한국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집중 조명
"위법망구 정신 담긴 의승군 위상, 제고돼야"
금산사 신도회,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2000만원

연재

< >

자현 스님의 유튜브브 입성기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18. 기러기 - 상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2. 지혜 ㉞





철쭉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 탓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지만 앞선 이들의 발길 쫓아 걸음에 걸음을 더 해갔다. 며칠 전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순례길 곳곳에 생겨난 물웅덩이는 대중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 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례에 나선 수행자들은 이마저도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오직 화두나 염불, 주력에 집중할 뿐이었다.

순례대중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자비순례에 이어 이번 천리순례에 동참한 올해 77세의 이채순 불자다. 그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한 제7회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에서 대상인 총무원장상을 수상하고, 이를 백만원력결집 불사에 회향한 신심돈독한 불자다.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반려견 이름으로 보시...“선업...”



많이 본 뉴스

- 01 교회 집사, 본사 주지스님에 “예수 믿으라” 강권
- 02 조계종 군중교구, 육·해·공군 부교구장 스님 임명
- 03 “전국 국공립합창단, 실상은 기독교 단체였다”
- 04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05 조계종 특별분담사찰 도선사 새 주지에 태원 스님
- 06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갚아야죠”
- 07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후보, 스님 비하 논란
- 08 전국비구니회, 광주시 가톨릭순례길 대책위 만든다
- 09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10 복원 마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대중 앞에 오롯한 자태 드러낸다



이채순 불자는 “지난해에는 이걸 왜 못하겠느냐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아상이었다”며 “올해는 하심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신청했다. 천리순례가 원만회향할 수 있도록 원력을 더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스님들 중에는 서울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이 최고령자다. 스님은 “새벽에 100여명이 말없이 고요하게 걷는 모습에서 출가인으로서 꼭 한번 해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익숙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안개 낀 새벽을 걷는다는 게 무척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길을 걸어 길에서 법을 펼치셨다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다”며 “원만회향을 목표로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정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순례단은 오전 11시 2일차 회향지인 사성암 주차장에 도착해 점심공양 후 사성암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에서 온 고승 연기조사가 처음 개창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성암은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지리산 연봉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유리광전에 모셔진 4m 높이의 음각된 마애여래입상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은 이날 순례단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10월9일에는 동국대 일산병원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례=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술선행 화합하며 목표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죠”
- └ “천리순례, 침체불교서 활발불교로의 ‘전환 동력’ 응집하는 결사”
- └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
- └ 불교중흥 상월정신 새기며 백담굴 따라 걷다
- └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
- └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불자들에 희망·용기 줄 것”
- └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중흥 기틀 마련하는 보살만행”
- └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도 함께한다
- └ 삼보사찰 천리순례서 국보·보물 문화재 친견한다
- └ “평등한 한 걸음, 능동적 동참과 실천 상징”
- └ 상월선원 만행결사로 확산된 걷기, 수행으로 승화돼 불교중흥 견인
- └ “천리순례, 역사 속 한국불교 저력 계승 원력행”
- └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천릿길 순례 대장정 펼쳐진다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에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3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한심하다 (비회원) | 9일전

삭제

코로나 시국에 꼭 저런 보여주기식 쓰름 해야 하나???
저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쓰인가?

답글 작성 2 0



정신차려라 (비회원) | 9일전

삭제

코로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나누어주며
타종교는 지금도 전도를 하는데
시주밥에 시주돈에 배가 나와
운동하나
차라리 이시간에
포교전단지 하나 더 돌려라
중들아

답글 작성  4  0



참 (비회원) | 9일전

[삭제](#)

진짜 순례라면 텐트도 본인들이 치고 본인들이 걷어라.
걷기만 하고 잡다한 일들을 직원들이 한다면 그 마음 속 원성을 어이하리... 나는 불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답글 작성  6  0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